

휴대형 A/D변환기  
개발

다일정보

다일정보는 최근 9개월간 2천만 원을 들여 휴대형 A/D변환기를 개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이번엔 개발된 제품은 컴퓨터의 직렬통신 포트와 연결해 별도의 외부전원 없이 심전도와 뇌파 등 외부에서 입력되는 각종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PC외장형이면서도 부피가 작아 휴대가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PCB 내수확대 주력

대덕전자

인쇄회로기판(PCB) 전문업체인 대덕전자가 내수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 동안 매출의 80%를 수출하는 등 수출에 주력해 온 대덕전자는 올해 내수비중을 50%선까지 늘리기로 하고 산업용 인쇄회로기판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2,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동기에 비해 40%신장

한 대덕전자는 내수시장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올해 매출 2,900억원, 당기순이익 1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만에 회사 외형이 2.5배 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LG반도체의 빅딜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100억~2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용 PCB업체인 이 회사는 양면PCB에 이어 82년 다층 인쇄회로기판(MLB)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의날 대통령 표창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지난달 3일 제33회 조세의 날을 맞아 성실세금납부업체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모니터, 독일 전문誌서 "최우수 제품(Sehr Gut)"으로 선정

대우전자

대우전자 모니터가 독일의 전문지인 『컴퓨터 빌트(Computer

Bild)』誌가 실시한 품질평가에서 "최우수 제품(Sehr Gut)"으로 선정, 대우전자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수준이 유럽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

대우전자는 독일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정보·통신 전문잡지인 『컴퓨터 빌트(Computer Bild)』誌는 2·3월 호에서 한국 및 대만업체 등 현재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니터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 테스트 2개 모델(모델명 : CMC-710B TCO95/CMC-901D TCO95)이 "최우수 제품(Sehr Gut)"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유럽시장에서 제1의 시장이며 품질에서도 제일 까다롭다는 독일시장에서 제품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에 대한 대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對유럽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빌트(Computer Bild)』誌는 품질·서비스·가격 등 총 20개 항목을 고려해 테스트를 한 결과, 대우 모니터 모델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를 통해 대우전자는 독일시장에서의 매출이 작년 월평균 2만대에서 3만대로 50%이상 급신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브랜드 판매 호조 및 OEM 물량의 확대로 올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200%가 성장한 6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99년형 에어컨 「수피아」 시판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축매를 이용하여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주는 수피아에어컨 총 22모델(패키지에어컨 DP-130H와 15모델, 룸에어컨 DS-050H와 5모델)을 대대적으로 출시하면서 에어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대우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수피아는 자연광 상태에서는 물론 어두운 실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여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말끔히 정화시키고, 다량의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숲속 청정으로 건강 냉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미국에서 1억3천만불 외화 조달 성공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외화 차입에 성공했다.

대우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은행 계열 BNY파인넬사와 뉴욕 판매법인(DECA)과의 자산중 외상매출금과 채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ABL방식으로 1억3천만불

의 차입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달 4일 발표했다.

ABL(Asset Backed Loan : 자산담보부 차입)방식은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이나 채고자산의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자금을 차입, 조달하는 방법이다.

이번 차입은 이자율이 리보+2.25%, 계약기간 3년을 기준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국내외적으로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실현한 장기저리의 대규모 해외차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 TV리모컨 겸용 전화기 개발

대우통신

대우통신이 TV리모컨으로 사용하다 전화가 걸려오면 무선전화기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 무선전화기인 「아망테」(모델명 TC310)를 개발했다.

대우통신에서 개발한 리모컨 전화기는 9백MHz 무선전화기 휴대장치에 리모컨 기능을 부가해 개발한 제품으로 대우·삼성·LG 등 회사와 제품 기종에 관계없이 모든 TV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무선전화기와 통합 리모컨 부분의 회로를 독립적으로 설계

해 고장 가능성을 제거했다.

휴대장치를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양방향 디지털 스피커폰·모닝콜·삐삐호출·룸모니터 기능을 가지고 있다.

## CPT 필립스 공급 300만대 돌파

삼성전관

삼성전관이 지난 95년 컬러TV용 브라운관(CPT)의 공급을 시작으로 필립스와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300만대의 판매량에 2억 1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필립스 본사의 마징거 구매담당이사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업장에서 「300만대 돌파 기념행사」를 갖고 필립스사측과 NAFTA·유럽·아시아지역에 있는 필립스 TV공장에 공급될 제품별 물량협의를 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관 해외공장과 필립스 TV공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글로벌 애프터서비스체제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필립스사측은 말레이시아·중국·멕시코·독일에 있는 삼성전관 현지공장들과 거래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CSP시장  
진출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 전문업체인 미국 테세라사와 제휴,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시장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차세대 CSP(Chip Scale Package)시장에 진출한다.

삼성전기와 테세라사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법인 양면 마이크로 BGA(Ball Grid Array) 및 WLCSP(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기판기술의 공동 개발 및 생산」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고 지난달 조인식을 체결했다.

삼성전기와 제휴한 테세라사는 미국 실리콘벨리에 본사를 두고 지멘스·소니·TI 등을 포함한 전세계 75개 업체와 반도체 관련 기술계약을 맺을 정도로 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 전문업체다.

이번 계약에서 삼성전기는 기판 설계 및 제조관련 특허와 기술을 제공하며 테세라사는 양면 기판 특화와 기술을 제공, 제품 개발 및 양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두 회사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을 공동특허로 공유하는 한편 상표까지도 공동 사용 및 마케팅을 통해 첨단

CSP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차세대 CSP인 양면 마이크로 BGA와 WLCSP는 회로폭이 25 마이크론급으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기존의 패키지 기판에 비해 3배 이상 어려운 기술집약적인 제품으로 경박단소의 휴대형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양면 마이크로 BGA를 포함한 세계 CSP시장은 올해 15억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오는 2002년에는 4배 이상 늘어난 70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분야다.

경비사용의 대변력  
사내화폐제도 시행

삼성전기

삼성전기 중국 동관법인은 사내화폐제도를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삼성전기 동관법인은 IMF극복을 위한 사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제적인 예산개념에서 탈피하여 부서 자율성을 보장한 예산제도인 사내화폐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실시, 반기동안 4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하였다.

사내화폐제도란 회사내에서 통용되는 '사내화폐'를 만들어 모든 경비 사용에 실제로 첨부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품의서에는 반드시 사내화폐가

첨부되어 결제를 진행시키게 된다.

올 매출목표  
19조3천억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올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내실경영을 다지기 위해 매출목표를 지난해 20조842억원에 비해 3.9%줄어든 19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앞서 LG전자도 올 매출목표를 전년 실적대비 13% 감소한 8조6000억원으로 확정한다. 있어 올해 국내 전자 업계의 경영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형확대보다는 긴축재정 및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사장은 이를 위해 올해 구조조정의 가속화 및 체질화, 경영혁신의 지속적 추진, 마케팅 중심 경영체제로의 변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전 사업부문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해 제로베이스예산을 편성, 경비를 30% 절감하고 부채비율도 지난해말 1백98%에서 올해 1백85%

선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초국적기업의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경영체제 구축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글로벌경영을 위해 연초 전사 차원의 글로벌마케팅실을 신설한데 이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과 글로벌 통합체계(Global Internet-Business)를 조기에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전세계 지역에 대해 공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지역은 올해안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개발설계·판매·물류·생산·구매·서비스·경영관리 등 7대 경영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과 함께 최적의 글로벌 자원관리시스템 및 글로벌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통합분류체제를 완성해 지역내 생산 및 공급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03년까지 글로벌

통합체제를 구현한다는 중장기 계획아래 글로벌 경영관리시스템과 글로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자재 인터넷 구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모든 자재를 인터넷으로 구매한다.

삼성전자는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모든 자재를 인터넷으로 조달키로 하고 최근 국내의 사업장-협력업체-물류업체-금융기관 등을 연결하는 ‘글로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에는 이 시스템을 해외 자재 구입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국내자재 구매와 해외 현지법인의 구매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은 인터넷 구매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2천7백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계열사인 삼성 SDS와 함께 7개월만에 개발한 이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자재 구매 관련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협력업체 보험회사 운송회사 금융기관 등의 업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점이 특징이다.

또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제

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고물량을 현재의 65일분에서 15일분으로 줄이고 해외자재 조달시간도 10주에서 2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삼성은 산업자원부가 시스템상의 전자서류를 공문서로 인정키로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통의 서류와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밝혔다.

윤병두 구매전략담당 이사는 “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이 발효되면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통관 업무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XGA급 LCD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고성능 노트북PC 시장을 겨냥해 1천2백80×1천24의 고해상도인 SXGA급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를 개발, 이달부터 월 5천개씩 양산한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15.4인치 SXGA급으로 현재 노트북PC에 채택되고 있는 XGA급(1천24×7백68)에 비해 해상도가 1.7배 높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중에선 최고의 선명도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해상도 제품은 화소의 크기가 작아 까다로운 생산공정과 품질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화면크기가 15.4인치지만 기존의 15인치 노트북PC에서도 채택할 수 있으며 모니터용 15인치XGA급 제품에 비해 20~30% 비싸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연간 5000만대 규모인 세계 VCR시장에 500만대 이상을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15%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조만간 세계 수위의 VCR업체로 부상한다는 전략이다.

또 케이블모뎀 세계표준인 MCNS(Multimedia Cable Network System)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 타사 제품과 호환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세계 최대시장인 북미지역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케이블모뎀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 앞으로 수출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바·톱슨과 VCR분야 제휴**

삼성전자

**케이블모뎀 5만대 수출**

삼성전자

**LCD 구동 반도체 선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 프랑스 톱슨사와 VCR분야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동시에 연간 2억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전략적 제휴는 삼성전자가 VCR의 핵심부품인 테크 및 부품을 도시바와 공동설계, 공동 사용하고 이 테크와 부품을 채택한 완제품을 도시바와 톱슨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지난해 도시바와 공동 개발한 테크를 채택한 VCR 완제품 1차분을 지난달 말부터 양사에 공급 개시, 올해 말까지 총 150만~200만대의 물량을 제공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품질과 성능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양사와 VCR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자사제품의 성과를

삼성전자는 캐나다 제2 케이블 운영 사업자인 비디오토폰(Videotron)사와 케이블모뎀(ITCM ; Integrated Telephony Cable Modem) 5만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케이블모뎀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음성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모델로 MCNS방식을 채택한 텔레포니 통합형 케이블모뎀 수출로는 최대규모다.

이 제품은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기존 모델에 비해 데이터 전송은 물론 음성서비스가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속도의 경우 기존 33.3kbps 다이얼 업 모델보다 100배 이상 빨라 신문지 32면의 데이터를 4초 이내에 전송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구동 칩에 문자와 영상 처리용 IC를 집적시킨 새로운 개념의 LCD 구동 반도체를 개발, 양산한다.

이 제품(모델명 KS0400)은 16×16의 대형 폰트를 사용, 일부 한글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존 수입 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또한 한자용 메모리(ROM) 2Mb를 내장시켜 별도의 메모리 없이도 최대 8192자의 한자 표시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특히 메모리와 문자 및 영상처리용 IC를 원칩화함으로써 부품의 사이즈를 크게 축

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자수첩·휴대전화 등 휴대형 정보통신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시장을 겨냥해 자체 메모리에 국내 전송규격인 KSC5601과 중국·일본의 통신 표준을 내장시켰다.

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대폭 축소, 동작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최고 32배 빠르다.

## 카멜레온 헤드폰카세트 출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외관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카멜레온 마이마이 헤드폰 카세트를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마이마이 V시리즈는 모두 3개 모델로 이 가운데 최고급 모델인 「MY-V1」은 카멜레온처럼 외관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할 뿐 아니라 음악감상시 헤드폰이 진동해 귀로도 듣고 느낄 수 있는 액티브 사운드를 채용했다.

이 제품은 또 마이크와 CD음을 녹음할 수 있음은 물론 PC와 연결해 MP3 음악파일을 카세트에 녹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밖에 자동선곡·방송국 자동기록·FM라디오 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반투명 유선리모컨과 액티브사운드 전용 헤드폰으로 구성돼 있다.

## 고급형 세탁기시장 '출사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고급형 세탁기 시장에 본격 가세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가전제품의 수요가 양극화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고급형 세탁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세탁물의 유형에 맞게 물살의 세기를 변화시켜주는 인버터 방식의 고급형 세탁기 「파워드림」을 개발, 지난 달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인버터세탁기는 고급형(모델명 SEW-F100C)과 보급형(모델명 SEW-F100) 등 2종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파워인버터 모터」를 채택해 세탁력을 대폭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도 기존 제품보다 25%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세탁조 아랫부분에 거름망을 설치해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제거효과를 높였으며 피부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물비누 장치의 기능을 한층 강력하게 하는 등 세탁·헹굼·거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크게 개선했다.

## 대만서 우수협력업체 선정

삼성코닝

삼성코닝이 대만의 브라운관업체인 TECO사로부터 우수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돼 「World Class Supplier」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달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연간 2백50만개의 브라운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TECO사에 유리벌브를 공급해 왔는데 이번에 TECO사의 부품공급업체 중 품질과 납기·서비스가 우수한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수상을 계기로 올해 TECO사의 수요량 90%를 공급하는 한편 신규 거래처 개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유럽·동남아·중국·인도·중남미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통신·산업용 코어 생산 확대

삼화전자

페라이트 코어 전문업체인 삼화전자가 통신 및 산업용 코어

의 생산비중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화전자는 올해 생산량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해 통신 및 산업용 코어의 매출실적을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50억원 규모로 끌어 올려 이 제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통신 및 산업용 코어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삼화전자는 올해에도 신제품 개발활동을 강화해 통신 및 산업용 코어의 생산품목을 10종에서 13종으로 늘리는 한편 품질의 신뢰성을 높여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트랜스포머용 E형 코어와 편향요크(DY)·고압변성기(FBT) 등의 생산에 주력해온 삼화전자는 앞으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 및 산업용 코어의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 사업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0Gbps 데이터 전송, WDM시스템 개발

성미전자

성미전자는 별도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최대 40Gbps급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파장다중분할접속

(WDM)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한국통신 기간망에 성공리에 구축했다.

성미전자가 이번에 구축한 구간은 해화(서울) - 부산을 잇는 5개 구간으로 총 연장길이는 2321km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영상전화·전자상거래·원격교육과 같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성미전자가 선보인 WDM장비는 2.5Gbps급 신호를 최대 16개까지 서로 다른 파장대에 포함된 디지털 정보로 다중화 혹은 역다중화해 전송할 수 있어 단일 선로상에서 최대 40Gbps까지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 양방향 통신 방식 무선 키보드 개발

세진전자

세진전자는 지난달 양방향 통신방식의 무선 키보드 「SWK-IRDA」를 개발, 출시했다.

이 제품은 키보드에서 입력한 정보가 PC 본체에 전송됐는지를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확인함으로써 일반 유선키보드와 맞먹는 입력신뢰도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SWK-IRDA」 무선 키보드는

한대의 PC에 최대 8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해도 혼선없이 정보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임 환경이나 높은 입력신뢰도가 필요한 전자상거래환경에 적합하다.

세진전자는 양방향 통신방식의 무선키보드가 앞으로 미국 홈쇼핑 시장에서 필수적인 결제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MP3 플레이어 커넥터 양산

신안전자

보드 투 보드 커넥터 전문업체인 신안전자는 최근 디지털 오디오기기인 MP3 플레이어용 보드 투 보드 커넥터를 개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신안전자는 최근 핀 수가 10~40핀이며 높이는 4.5~6.5mm인 MP3 플레이어용 0.8mm 보드 투 보드 10여종의 커넥터를 개발, 미 다이아몬드사에 월 15만개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미 굿맨그룹과  
전략적 제휴

아남전자

아남전자가 미국의 3대 백색가전업체인 굿맨(GOODMAN) 그룹의 아마나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아남전자는 아마나사에 앞으로 10년간 디지털TV·DVD플레이어·디지털 오디오인 AC3 리시버 등을 독점 공급하는 대신 아마나사로부터 냉장고·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을 제공받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지난달 1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굿맨그룹과 체결했다.

또한 아남전자는 앞으로 3년간 아마나사에 총 2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AV제품을 공급하고, 아마나사로부터 1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백색가전제품을 OEM으로 공급받는 상호 구매의향서를 교환했다.

양사간의 이번 전략적 제휴는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 CE쇼에 참가한 아남전자 부스에 굿맨그룹의 프랭크 회장이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고 아남전자측은 설명했다.

이번 제휴는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내 브랜드가 필요했던 아남전자와 백색가전 이외에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침

단 디지털 AV제품이 필요했던 굿맨그룹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분석된다.

아남전자는 굿맨그룹과의 제휴 성사로 앞으로 10년간 25억달러 규모의 AV제품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아마나사의 백색가전제품을 OEM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AV와 백색가전을 동시에 판매하는 종합가전업체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굿맨그룹측은 이번 전략적인 제휴를 계기로 아남전자에 대한 자본투자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굿맨그룹은 자니트룰·굿맨·GMC·아마나·칼로릭·모던 메이드 등 지명도 높은 브랜드로 산업용 및 상업용 그리고 가정용 에어컨 부문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아마나는 GE·RCA·월풀과 함께 미국의 3대 냉장고 제조업체이면서 에어컨·전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 등 백색가전과 주방용기를 주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분사화’ 박차

오리온전기

전문 디스플레이업체인 오리온 전기가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들어 기업경쟁력 강화와 자원 및 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회사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분사대상으로 정하고 종업원에 의한 사업분할방식(EBO)으로 분사화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독립한 분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3년 정도 물량 및 분사참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원과 함께 창업에 따른 교육과 사무실 등 작업환경 및 설립절차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분사에 대해 지분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정보 분야 Y2K문제 해결  
고성능 중소형 PLC 출시

LG산전

LG산전이 최근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고성능 중소형 논리연산 제어장치(PLC)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출시한 신제품(모델명 뉴마스터-K시리즈)은 K200S, K300S, K1000S 등 3모델로 각각 200점, 300점, 1000점을 제어하며



기존 마스터K시리즈의 속도와 통신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 뉴마스터-K시리즈는 먼저 자동화분야의 주요 문제로 부각된 비정보분야(Non-IT)의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 자동화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품은 또 연산시간을 스텝당 0.2 $\mu$ s(마이크로초)로 고속화해 실시간제어 및 시스템 감시를 가능하게 했으며 RS232C, RS485, 필드버스 및 이더넷 등의 다양한 통신표준을 이용해 1대1, 1대N, 전용선, 상위네트워크간 연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유럽형 디지털 TV 수출 호조**

LG전자

LG전자의 유럽형 디지털TV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영국 굴지의 방송장비 공급업체인 페이스사에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가 내장된 일체형 디지털TV를 지난해 말부터 2월말까지 총 3000대 공급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또 이달초까지 추가로 5000여대를 공급해 4월까지 공급물량이 총 800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영국 페이스사와 이 회사의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를 내장한 일체형 디지털 TV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페이스사는 이 제품을 디슨·그라나다 등 영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을 통해 비스카이비(BskyB) 디지털위성방송 시청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전자레인지, 중국시장서 '돌풍'**

LG전자

LG전자가 중국 전자레인지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LG전자는 총 270만대에 달했던 지난해 중국 전자레인지시장에서 35만대를 판매, 전체시장의 12%를 차지했다.

현지 생산업체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전자레인지시장에서 이같은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61%를 차지한 중국 갈란츠에 이어 두번째며, 현지 업체들은 물론 일본 파나소닉(6.02%) 등을 크게 앞선 것이다.

LG전자는 지난 95년 중국 천진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중국 전자레인지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97년까지는 시장점유율면에서 10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LG전자는 올해 전체 시장의 15%인 총 45만대(3500만달러)를 판매할 계획이다.

**중국에 디자인센터 설립**

LG전자

LG전자는 중국 가전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북경에 디자인센터(LGEDC)를 설립하기로 했다.

LG전자의 이번 북경 디자인센터 설립 추진은 선진기업들의 대거 진출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제품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최근 중국 지역본사내에 디자인분소를 개설, 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현지 시장에 맞는 디자인연구에 착수했다.

**무방향성 스피커 진동판 첫선**

LG정밀

LG정밀은 세계 최초로 원음재생 능력을 극대화시킨 고성능·고음질의 스피커용 IPC(Isotropic Pseudo Cloth : 무방향 유사 직조물) 진동판을 개발했다.

이 진동판은 아라미드와 카본 등의 고기능성 섬유 소재를 무방향 직조법을 사용, 방향성을 제거함으로써 원음재생 능력을

완벽하게 살린 고출력 제품으로 총 10억원 가량의 개발비를 투자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 등에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중이라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종래의 아라미드와 카본 소재의 진동판은 고탄성 섬유가 지닌 우수한 물성 때문에 음질·성능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직조물의 방향성으로 인한 분할진동 때문에 섬유소재가 지닌 우수한 음향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LG정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날실과 씨실의 상하 교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조물의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 한 가닥의 실이 날실과 씨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방사상 적층배열법을 개발, 하이파이 스피커 진동판 제조에 적용했다.

LG정밀은 "방사상 적층 배열법을 진동판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직조물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방향에 따른 균일한 물성으로 인한 분할진동을 최소화하였고 음의 선명도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섬유의 상태를 직선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주름에 의한 탄성을 및 전파속도의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LG정밀은 앞으로 이 진동판을 채용한 IPC스피커를 양산, 국내 가전업체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세계 우수 스피커업

체에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

이동통신용 핵심부품  
2종 수출

LG정밀

LG정밀이 최근 세계적 통신업체인 미국 모토롤러사와 100만 달러 상당의 이동통신용 핵심부품을 공급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선적에 들어간다.

이번 모토롤러에 공급되는 부품은 LG정밀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으로 표면탄성파(SAW) 필터와 PA모듈(고주파전력증폭기) 등이다.

SAW필터는 일정대역의 주파수만을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차단해 혼선과 잡음을 방지하는 핵심부품이며 PA모듈은 단말기 송신부의 신호를 증폭, 안테나로 송신하는 부품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모토롤러에 부품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다른 통신기기업체들에도 이동통신부품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모토롤러사의 수출

을 계기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PA모듈, SAW필터, 듀플렉서, 마이크로파워모듈 등 통신부품 생산설비를 대폭 늘려 국내외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딜러위한 키폰·유무선 홈페이지 개설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50여개국의 키폰·유무선 전화기 거래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선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달 5일부터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홈페이지 오픈은 인터넷 망을 통한 해외거래선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출상담은 물론 각종 문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피드 백(Feed-back)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거래선들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국내업체로는 드문 경우이다.

투명플립 PCS  
단말기 출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은 내부의 키버튼이 보이는 투명플립의 독특한 디자인에 이동전화 매너를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정속모드 기능을 내장한 「싸이언 PCS」(모델명 LGP-6300F)를 출시한다.

새로 선보인 투명플립 스타일의 PCS 단말기는 감각을 중요시하는 신세대 고객을 위한 것으로 플립 내부에 스티커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 제품은 진동모드 전환 위주의 기존 에터켓기능에서 탈피, 진동모드 전환은 물론이고 키톤음량 무음전환·알람진동 전환·메시지 수신음 무음전환 등 모든 발생소음을 원터치로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정속모드기능을 채택했다.

또한 표준형 배터리로 최고 75시간까지 통화대기가 가능하고 멜로디 녹음기능·자동응답기능·마이크 겸용 이어폰기능 등이 있다.

국내 최초 차세대  
디지털 TV 송신기 개발

LG정보통신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디지털TV의 상용화 작업이 전세계적으로 한창인 가운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디지털TV 송신기가 마침내 국산화됐다.

50여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돼 개발된 이 송신기는 전송률이 19.3Mbps로 VHF 및 UHF 채널을 통해 1,920×1,080 해상도의 HDTV 1개 채널, 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NTSC방식 TV 3개 채널 이상 전송이 가능하며, 비디오 신호압축은 MPEG-2, 오디오 신호압축은 AC-3방식을 각각 적용한 ATSC방식(북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은 국내 송신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국내 방송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축적된 방송기술과 LG정보통신의 무선기술이 접목돼 21세기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디지털TV 송신기를 국산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속 열처리  
‘RTP 시스템’ 개발

코닉시스템

반도체 장비업체인 코닉시스템이 반도체 제조공정중 이온 주입후 어닐링(Annealing) 작업 및 각종 산화막 증착에 사용되는

고속 열처리장비인 RTP(Rapid Thermal Processing)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RTP 시스템은 반도체 회로선 폭의 미세화 추세로 기존의 수직형 퍼니스(Vertical Diffusion Furnace)로 작업할 수 없는 각종 미세 웨이퍼 산화막 증착 공정을 순간 고열처리 및 균일한 열투사 기능을 통해 수행하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RTP 장비는 매초 섭씨 2백도까지 순간 상승시킬 수 있는 고성능 제품으로 한 개의 로봇에 2개의 작업 체임버를 장착할 경우 시간당 최대 90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코닉시스템은 이 장비에 자체 개발한 클러스터 톨 컨트롤러(CTC : Cluster Tool Controller) 시스템을 장착, 최대 6개의 공정 체임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 출시된 RTP 장비는 8인치 웨이퍼용 「RTP800」과 6인치 웨이퍼용 「RTP600」 등 2가지 모델이다.

4인치 컬러액정 TV 시판

태양산업

태양산업이 4인치 컬러액정 모니터와 컬러액정TV를 각각 개

발, 시판에 나섰다.

태양산업이 개발한 컬러액정모니터와 컬러액정TV는 모두 화면크기가 4인치인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가 채용됐고 TV방송화질과 비슷한 11만2천86화소의 해상도를 제공한다.

컬러액정 모니터(모델명 씨니골드 771)는 TV튜너가 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TV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는 없지만 각종 비디오 기기와 연결시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제품은 TCR나 비디오 CD플레이어 등과 연결시켜 자동차 안에서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카내비게이션용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액정모니터가 없는 캠코더와 연결시키면 캠코더용 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컬러액정TV(모델명 씨니골드 772)는 TV튜너가 내장돼 자동차 안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각종 기기의 모니터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 디지털 원격영상감시장치 개발

창흥통신

창흥통신이 원격영상을 디지털 비디오리코더(DVR)나 PC간 연

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로 직접 전달해주는 디지털 원격영상감시장치(모델명 넷캠)를 업계 최초로 개발, 공급에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1년간 약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다양한 통신프로그램 기반의 원격감시·경보기능을 수행하는 서버기능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본격 출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400~56kbps의 운용속도를 가지며 인터넷에 연결해 다양한 원격 감시 기능 및 통신제어를 수행한다.

시스템 구축사업자는 이 장치와 중앙센터를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실시간 영상·동영상 전송 및 검색 데이터 저장 기능을 활용한 원격제어·동영상전송 및 이벤트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버스 및 택시회사가 이를 위치측정시스템(GPS)엔진과 함께 설치해 사용하면 차량 위치확인은 물론 이 장치만으로 다양한 화면을 별도의 조작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넷캠은 공중전화교환망(PSTN)·근거리통신망(LAN)·전용회선·일반전화선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T1, E1급 전용회선을 이용한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구축할 수 있다.

윈도95, 98 운용환경을 갖는 이 시스템은 영상보드·중앙처리장치·데이터저장·모뎀·영상입

력보드로 구성되며 별도로 모뎀·리모컨·CRX·모니터·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 ‘우수 납세자’ 표창받아

필립스전자

필립스전자는 지난달 3일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액 외국인 출자기업이 우수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IMF 극복 성공사례 대상

필코전자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IMF극복 성공사례 대회’에서 필코전자가 대상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KBS 제1스튜디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을 수여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필코전자는 콘덴서 및 저항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노사분규가 심하게 경영위기 상황에 이르렀으나 팀단위 목표설정 관리로 이를

극복해 낸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 회사는 특히 대리급 단위의 현장 책임자들에게 SIT(Self Improvement Target)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토록 해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 작년 매출 578억 기록

#### 한국전자공업

한국전자공업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따른 자동차시장의 침체로 주력사업인 자동차용 커넥터의 매출이 부진해 97년 대비 19.6% 줄어든 5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65억원을 달성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커넥터가 333억원의 매출을 기록, 여전히 주력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가전 109억원, 통신 36억원 순이다.

한국전자공업은 올해 들어서 자동차시장이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광커넥터의 매출도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에도 본격 참여함에 따라 올 매출을 지난 97년 수준인 7백억원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자동차와 가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광커넥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용 커넥터 및 고주파(RF) 부품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

는 한편 수출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 부품사업 주력

#### 한국전자공업

한국전자공업은 최근 입력된 광신호를 차등을 두고 감쇠시키는 광가변감쇠기를 개발하는 등 광부품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전자공업은 지난 97년부터 광부품사업에 참여, 그동안 패치코드와 고정감쇠기 등을 개발했으며 최근 가변폭이 0~60dB의 세계적인 수준의 광가변감쇠기 개발을 계기로 이 시장에 본격 뛰어 들고 있다.

한국전자공업은 올해 광부품으로 17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아이솔레이터 등 몇개 제품을 추가로 시장에 선보이기로 했다.

### 'L-MOS' IC 국산화

#### 한국전자

로직 IC의 일종으로 PCS단말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비롯,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L-MOS가 국내기술로 개발됐다.

한국전자는 지난 1년간의 개발기간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L-MOS(Logic MOS IC)를 개발, 지난달부터 양산에 착수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PCS단말기·CD롬 드라이버 등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에 월 1000만개 정도가 소요됐으나 대부분 일본의 도시바사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다"면서 "이번 L-MOS 양산을 계기로 연간 1500만달러 규모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양산에 들어간 L-MOS 제품은 2.1×2.0mm의 크기로 표면실장형(SMD) 트랜지스터와 비슷할 정도로 소형이며 AND·NAND·NOR·OR·인버터 등 10여종이다.

L-MOS는 보통 4~6개의 논리회로가 들어있는 로직 IC를 1~2개의 논리회로만으로 구성한 로직 IC다. 이 제품은 논리회로가 적게 들어있는데다가 이를 극소형 패키징 기술로 조립, 크기를 일반 TTL제품에 비해 최대 20분의 1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어 이동통신단말기나 캠코더와 같은 경박단소형 제품에 적합하다.

한국전자는 지난달부터 하나의 논리회로로 구성된 싱글타입 「USV」시리즈를 공급했으며 하반기부터는 2개의 논리회로가 들어있는 듀얼타입 「SM8」시리즈를 공급하는 등 L-MOS를 향후 주력제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